

광주시 청렴도 1등급 달성 총력

이용섭 시장 홍보물 나눠주며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이해충돌 방지법 팸플릿 등 배부
 직무 관련자 접촉 제한 정책 강화



광주시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서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오전 시청 1층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이용섭 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 등이 참여해 출근하는 공무원에게 청렴광주 홍보물과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등 배부했다.

광주시는 올해를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로 정하고 민원인 등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청렴알림문자 발송을 비롯한 청렴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청렴기동반을 구성해 10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하고, 불편사항 청취 및 해소를 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패행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 캠페인, 갑질 없는 직장 만들기 간부공무원 솔선 참여 선언식,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청렴특강,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구성 운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온라인 퀴즈대회 청렴골든벨 추진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청렴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부터 부정부패 근절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지난 8월부터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을 비롯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도 향상, 행정의 신뢰 확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의 면담, 감독 등 대면 접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시간 내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사전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접촉 종료 후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와 금전거래가 있을 때는 당초 300만원 이상만 신고하게 했지만, 신고 금액 규정 자체를 없애고 금전거래는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골프와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할 경우도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김치타운, 온라인 가을김치 한마당 연다

23~24일, 김치명인과 김치 담그기

광주김치타운은 “김장철을 앞두고 광주김치를 홍보하기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가을김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소재 김치 밀키트를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김치명인과 함께 각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치 밀키트는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현숙희 명인이 만든 조리법으로 HACCP 및 전통신품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다.

메뉴는 총 2종(배추김치 1kg, 총각무김치 1kg)으로 배추, 무, 양념 기타 소재료를 소분 포장해 구성됐다.

온라인 강의는 2일간 매일 3회 김치타운 내 김치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며, 현숙희 김치명인의 김치 담그기 비법을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소통하며

배울 수 있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광주김치타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1가정 1키트)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 시 키트 종류와 강의시간 선택,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밀키트는 택배로 무료 배송된다.

신청자는 온라인 접속을 위해 휴대폰 또는 PC에 ZOOM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행사 전날 문자를 통해 택배 및 줌 접속링크를 안내받는다.

광주김치타운은 행사 이후 각 가정에서 김장김치를 언제든 만들 수 있도록 배추김치, 총각무김치 조리법과 제작 영상을 홈페이지(자료실-영상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김치타운(062-613-8226)으로 하면 된다.

황인근 김치타운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가정에서 우리의 김장문화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 장관상 수상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제1회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녹색건축’은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분야의 대안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과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지

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과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격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광주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분야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을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에너지 성능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 뉴딜정책과 광주 AI-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치경찰 100일... '광주형 치안 서비스' 추진 박차

10차례 회의 38개 안전 심의·의결
 제도 기반 마련·맞춤형 시책 발굴

지난 7월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맞춰 출범한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중심의 ‘광주형 치안 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광주 자치경찰 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100일 동안 모두 10차례 회의를 열어 38개 안전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

출범 직후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의결하고 광주경찰청과 법규 위반 단속, 시설 개선,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 지난달까지 4만여 건 단속, 지주식 표지 이설 157건, 노면 표시 사업 등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배달문화 확산으로 증가한 이륜차의 난폭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 시설 특별 단속, 2학기 전면 등교에 맞춰서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수립 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은 이날에는 내년 예산안, 신규 시



책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으로 메타 버스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범죄 예방 가상현실(VR) 활용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로 주취자 대응에 필요한 경찰력을 긴급 사건·사고에 투입해 치안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 위원장은 “시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치안 서비스로 연결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생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8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면서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가구 1231만 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도 위기사유로 발생한 가구 중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8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시설 지도점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제1, 2하수처리장에 대한 검사요원 훈련 사항과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것으로, 점검 내용은 시험실 운영과 사용되는 분석장비의 정도·교정검사 및 사용 시약, 기구류의 관리상태 등이다.

또 측정분석 시 필요한 공정시험방법의 최신본 유지, 기기분석조건, 시험항목 전처리 방법의 정확성, 국제단위계 시험결과 표기 적정성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관련시설의 실행실적을 점검해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실험 결과값의 정밀도, 정확도를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